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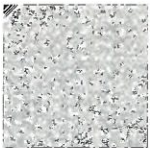
시울 주보

제23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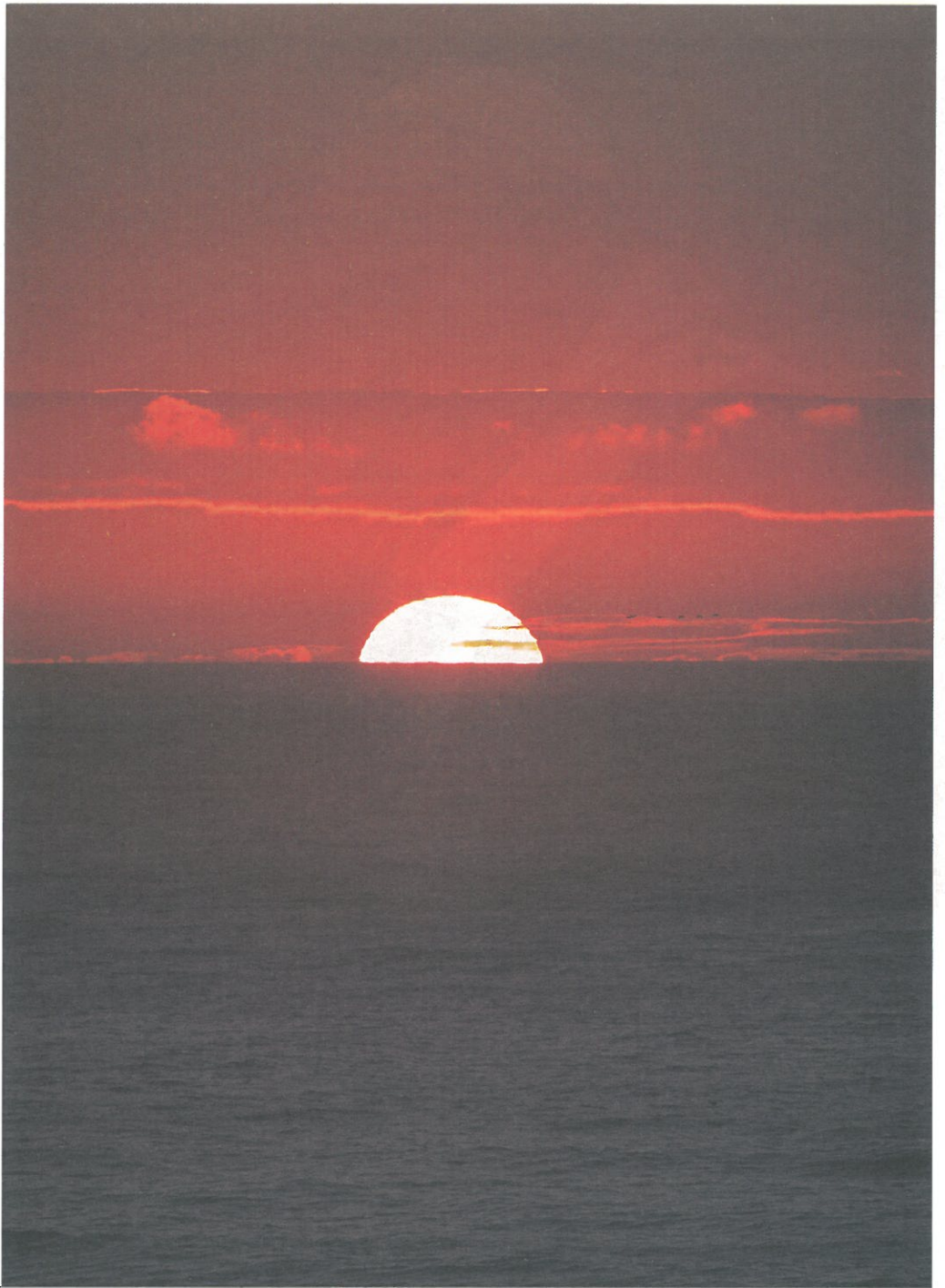
2022년 1월 1일(다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디지털대인용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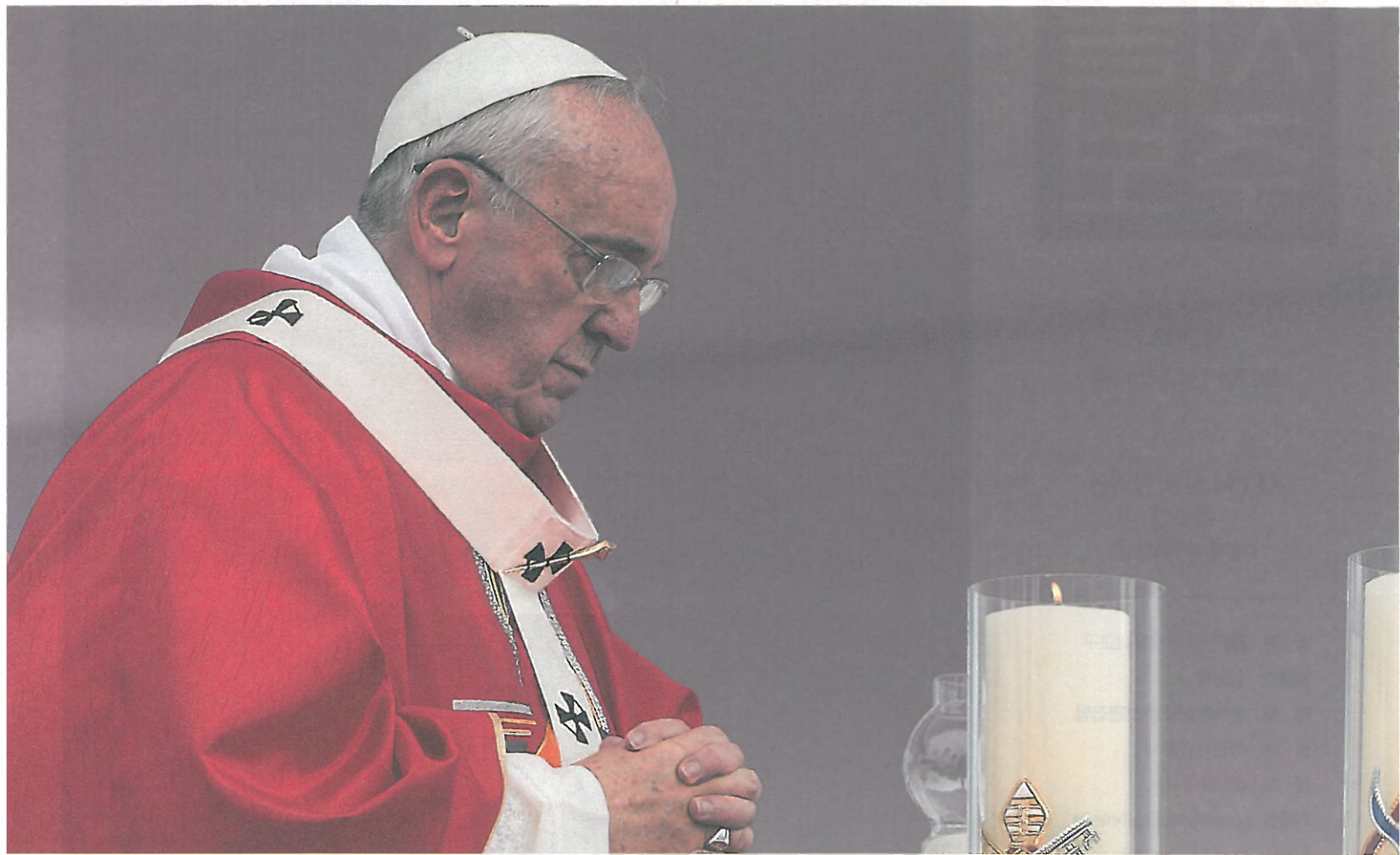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2022년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요약)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

모든 시대에 평화는 높은 데서 내려오는 선물이며 함께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모든 이는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로 이어지며 모든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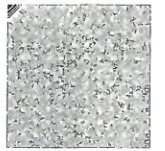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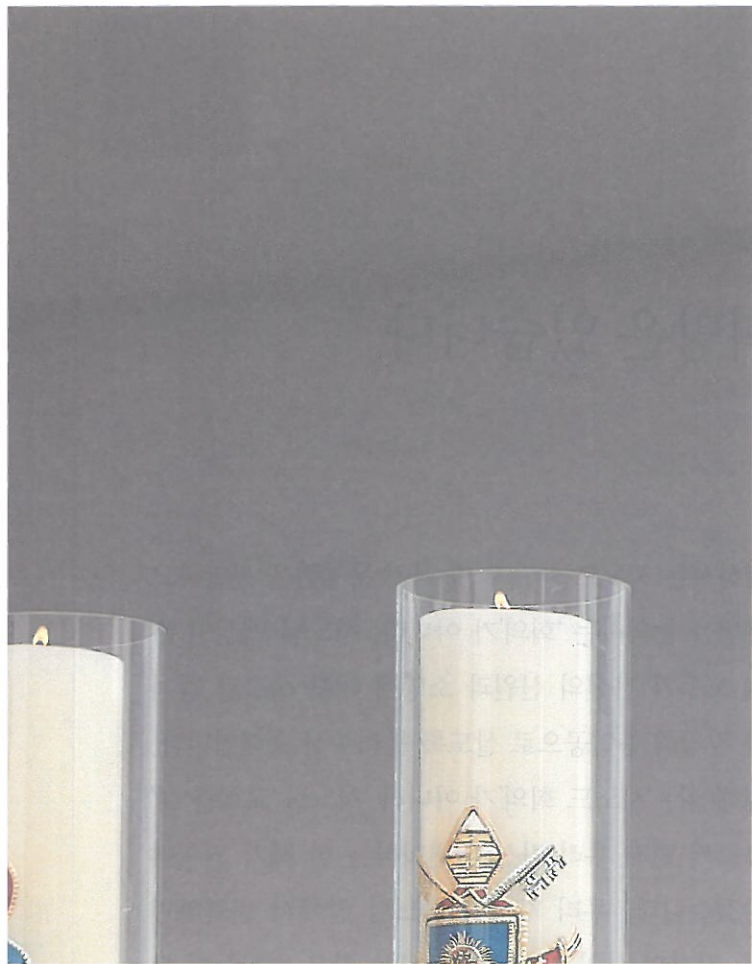
저는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세 가지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은 세대 간 대화로, 공동 계획을 실현하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길은 교육으로, 자유·책임·발전의 한 요인입니다. 마지막 길은 노동으로, 인간 존엄을 온전히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세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갈등과 무관심이라는 딱딱하게 굳어 척박해진 땅을 갈아엎는 일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지원, 사랑, 창의력, 활력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에 굳건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전문) QR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돌봄의 문화를 촉진 하려는 더 큰 노력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교육과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양성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이 노동 시장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동은 평화를 건설하고 지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노동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받은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다른 이들과의 협동을 드러냅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더욱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노동 시장에 수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삼분의 일만이 사회 보호 시스템을 누리거나 그러한 시스템의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받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폭력과 조직범죄가 증가하여,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고 경제를 망치며 공동선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품위 있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동을 점진적인 기술 발전으로 대체 하려” 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 연령에 있는 모든 이가 노동을 통하여 자기 가족의 삶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업의 진취성에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이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의 길을 용감하게 창의적으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묵묵히 겸손과 용기로 날마다 평화의 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강복으로 그들이 언제나 영감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빕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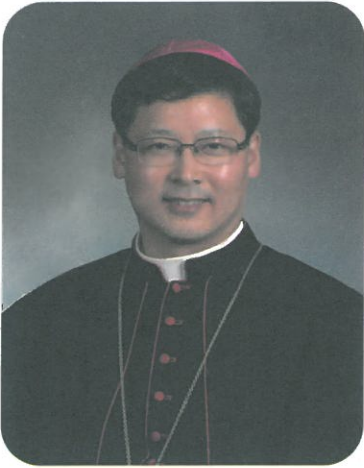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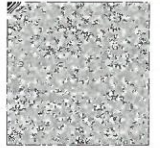
Francisco

히 뿌리내릴 수 있으며 거기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시기에 세대 간 대화의 특별한 상황과 맥락인 교육과 노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세대 간 대화를 위한 방식을 알려주고, 노동의 경험은 여러 세대가 협력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은 통합적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으뜸 수단이고, 개개인이 더 큰 자유와 책임을 갖도록 하며, 평화를 지키고 증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부들이 교육과 무기에 사용되는 공공 기금의 비율을 역전시킬 경제 정책들을 개발할 때입니다. 국제적 군비 축소의 참된 길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 교육 시설, 기반 시설, 땅에 대한 돌봄 등을 위하여 경제적 자원을 더욱 잘 이용할 때에 민족들과 국가들의 발전을 위하여 이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년 메시지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예즈 10,2)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한 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한 해의 달력이 마감되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은, 그저 세월의 무상한 쳇바퀴가 도는 게 아니라 분명 하느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최근 2년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 지치고 힘들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새해가 밝아옴은 지치고 갈라진 마음에 생기를 주는 한 줄기 생명수같이, 새 분위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밝아온 새해는 지난 2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초유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개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개인들의 연대가 중요함을 우리 모두 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노드 교회를 살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요

청하시는 시노드는 단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원과 소명에 대한 성찰과 참여와 경청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초대입니다. 새해에는 ‘시노드 회의’가 아니라 ‘시노드 교회를 삶’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변화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변화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강원도 고성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26)

밤새 내리던 비에 흐린 아침을 예상하고 풀어서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잠을 설치다 어슴푸레 뜬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오늘도 어김없이 세상을 비춰주는 그 태양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하나 부드럽고, 뜨거우나 포근하고, 강력하나 자비로우신 하느님!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저희를 비춰주심에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